

〈譯註〉

『舊唐書』 권140, 韋臯傳 譯註*

張 群 洋 **

韋臯(746~805)는 字가 城武이며 京兆 [萬年]人이다.¹⁾ [代宗] 大曆 연간(766~779) 초 建陵挽郎²⁾으로 華州參軍에 보임[調補]되었고, 승진[累]하여 使府의 監察御史에 제수되었다.³⁾ [德宗 建中 3년(782) 4월] 宰相 張鎰이 나가 鳳翔·隴右節度使가 되자⁴⁾ 상주하여 위고를 營田判官으로 삼으니, 殿中侍御史·權知隴州行營留後事가 되었다.

건중 4년(783) [10월] 涇師(즉 徑原節度)가 犯闕하여 덕종이 奉天[縣]으로 피난[幸]하였는데,⁵⁾ 鳳翔兵馬使 李楚琳이 장일을 살해하고 [鳳翔]

* 『舊唐書』 권140, 韋臯傳, 中華書局標點本, 3821~3826쪽을 역주한 것이다. 원문을 병기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경우에는 [], 용어를 설명할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고, 중국 정사는 中華書局標點本을 이용하였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1) 『新唐書』 권158, 「韋臯傳」, “韋臯字城武, 京兆萬年人. 六代祖範, 有勳力周·隋間”(4933쪽).

2) ‘建陵’은 肅宗의 陵이다. ‘挽郎’은 출상할 때 영구를 끌며 挽歌를 부르는 자를 말한다. 당대의 挽郎에 대해서는 劉琴麗, 「再論唐代的齋郎與挽郎」, 『江漢論壇』 9, 2005 참조.

3) 『신당서』 권158, 「위고전」, “皋始仕爲建陵挽郎, 諸帥府更辟, 擢監察御史”(4933쪽).

4) 『舊唐書』 권12, 「德宗本紀」上, 建中 3년(782) 4월 조, “戊寅, 以中書侍郎·平章事 張鎰兼鳳翔尹·隴右節度使, 以代朱泚”(332쪽). 吳廷燮, 『唐方鎮年表』 권1, 鳳翔, 中華書局, 5쪽.

5) 『資治通鑑』 권228, 덕종 건중 4년(783) 10월 조, “上發涇原諸道兵救襄城. 冬, 十月, 丙午(2일), 涇原節度使姚令言將兵五千至京師. … 上思桑道茂之言, 自咸陽幸奉

府城을 가지고 叛하여 朱泚에게 귀부하였고 隴州刺史 郝通은 이초림에게 달아났다.⁶⁾ 이에 앞서 주체는 范陽에서 입조하면서부터 甲士들에게 자신을 따르게 하였는데, 이후 주체가 봉상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파직되고 나서⁷⁾ 범양의 500인을 남겨 농주를 지키게[戍] 하고 주체의 舊將 牛雲光에게 그들을 통솔하게 하였다. 당시 주체는 이미 逆徒를 거느리고 봉천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우운광이 이에 따라 칭병하면서 위고에게 [藩]帥가 되어달라고 청하고는 장차 반란을 모의하여 위고를 사로잡아 주체에게 달려가려 하였다. 위고의 장수 翟擘이 이를 엿보다 알아채고는 위고에게 알려 대비하게 하였는데, 우운광은 일이 누설된 것을 알고 마침내 그 병사들을 이끌고 주체에게 달아났다. [우운광이] 도주하다가 [隴州] 汧陽縣에 이르러 사자로 위고가 있는 곳으로 가던 주체의 家僮 蘇玉을 만났는데, 소옥이 우운광에게 말하길 “太尉(즉 주체)께서 이미 寶位에 오르시어 나로 하여금 조서를 가지고 [가서] 위고를 御史中丞에 임명하도록 하셨으니, 君께서는 군사를 데리고 농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고가 만약 [태위의] 명을 받아들인다면 곧 우리 사람이 된 것이고, 만약 조서를 받들지 않는다면 그는 서생에 불과하므로 도모하면 될 것입니다. 일이 성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라고 하자 [우운광이] 마침내 군대를 돌려 농주로 빠르게 달려갔다. 위고는 그들을 맞이하여 위로하고는 우선 소옥을 들여 그 주체의 임명[僞命]을 받아들였다. 이에 [위고가] 우운광에게 물기를 “애초에 알리지도 않고 떠났으면서 지금 다시 온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자, 우운광이 말하길 “이전에는 공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몰래 떠났는데, 공에게 새 명령이 내려왔음을 알

天”(中華書局, 7351~7359쪽).

6) 『자치통감』 권228, 덕종 건중 4년(783) 10월 조, 7359~7360쪽.

7) 주체는 장일의 전임자로, 그가 봉상절도사에 임명된 시기는 대종 대력 12년(777) 12월이다(吳廷燮, 『唐方鎮年表』 권1, 鳳翔, 5쪽).

고 지금 마침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원컨대 공과 힘을 합쳐 공적을 세우며 생사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위고가 “중소.”라고 하였다. 다시 [위고가] 우운광에게 말하길, “大使가 진실로 속일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청컨대 병장기와 갑옷을 반납하여 성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운광은 위고를 서생을 대하였던 데다가 진실로 그러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침내 활, 화살, 창, 갑옷을 모두 주었는데, 위고는 그것을 받고 나서 마침내 그 병사들을 들었다. 다음날 위고가 郡舍에서 소옥·우운광의 병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며[犒宴] 양쪽 행랑에 병사들을 매복시켰는데, [병사들이] 술을 마시자 복병을 일으켜 그들을 모조리 주살하고 우운광·소옥의 수급을 베어 효시[徇]하였다. [11월] 주체가 다시 家僮 劉海廣을 보내 위고를 봉상절도사에 임명하였으나, 위고는 유해광 및 종자 3인을 참수하고 한 명을 살려 보내 주체에게 알리게 하였다. 이에 [덕종이] 조서를 내려 위고를 御史大夫·隴州刺史에 임명하고 奉義軍節度を 설치하여 [절도사에 배수하고] 그를 표창[旌]하였다.⁸⁾ 위고가 從兄 [韋] 卞 및 [韋] 兪을 보내 잇달아 奉天城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성 안 사람들은 위고에게 대비가 있음을 듣고 사기가 배로 늘어났다.

위고가 마침내 뜰에 壇을 쌓고 희생의 피로 장졸들과 맹서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보우하지 않아 나라에 재난이 많으니, 역신이 이를 틈타 궁궐을 점거하였다. 이초립은 또한 흉악한 무리를 선동하여 성읍을 함락시키고 포획한 짓을 더하여 本使(즉 장일)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미 뒷사람을 섬기지 않는데 어찌 아랫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때문

8)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건중 4년(783) 11월 조, “乙亥, 以隴右節度判官·隴州留後·殿中侍御史韋臯爲隴州刺史·兼御史大夫·奉義軍節度使”(338쪽);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 11월 조, “乙亥, 以隴州爲奉義軍, 擢臯爲節度使, 泚又使中使劉海廣許奉鳳翔節度使, 臯斬之”(7369쪽).

에 분기가 마음속에서 격동하여 평정을 유지할 겨를이 없으니, 그대들과 더불어 맹서하여 왕실에 충성을 다하려 한다. 무릇 우리가 함께 맹서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해 천명을 따라 흉적을 제거한다면 선조들의 영령이 반드시 암암리에 도울 것이다. 말에 정성이 있으면 뜻이 합쳐질 것이고 의로움에 감화되면 마음이 가지런해질 것이니, 분골쇄신할 뿐 결코 뒤돌아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뜻을 변절하는 자가 있다면 신령이 그를 죽일 것이며, 자손들까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皇天·后土시여, 이 말을 살피주소서[兆].”⁹⁾ 또한 사자를 보내 토번에 들어가 구원을 [요청하였다].¹⁰⁾ 11월 檢校禮部尙書에 더해졌다. 興元 원년(784) [7월] 덕종이 還京하자¹¹⁾ [위고를] 불러 左金吾衛將軍에 임명하였는데, 곧이어 [8월] 大將軍으로 옮겼다.¹²⁾

貞元 원년(785) [6월] 檢校戶部尙書·兼成都尹·御史大夫·劍南西川節度使에 배수되어 張延賞을 대신하였다.¹³⁾ 위고는 雲南蠻의 무리 수십만이 吐蕃과 和好하여 토번인[蕃人]이 [당을] 침입할 때마다 반드시 운남만을 前鋒으로 삼는다고 여겼다. [정원] 4년(788) 위고가 判官 崔佐時를

9) 『全唐文』 권453, 韋臯, 「誓將士文」, 中華書局, 4632쪽.

10)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 10월 조, “初, 朱泚鎮鳳翔, 遣其將牛雲光將幽州兵五百人戍隴州, … 明日, 舉宴玉·雲光及其卒於郡舍, 伏甲誅之, 築壇, 盟將士曰, ‘李楚琳賊虐本使, [胡三省注: 本使, 謂張鎰也, 李楚琳, 鎰之部曲將, 而殺鎰從逆, 故云然.] 既不事上, 安能恤下, [胡三省注: 隴州, 鳳翔巡屬也, 言李楚琳既虐殺其帥, 安能恤隴州將士乎!] 宜相與討之!’ 遣兄平奔詣奉天, 請命於行在所, 復遣使求援於吐蕃. [胡三省注: 恐朱泚遣兵攻之, 引吐蕃以爲援]”(7367~7368쪽).

11) 『자치통감』 권229, 덕종 흥원 원년(784) 7월 조, “壬午, 車駕至長安, …”(7440쪽). (宋) 程大昌, 『雍錄』 권5, 德宗幸奉天入出漢中, 中華書局, 99~103쪽.

12)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흥원 원년 8월 조, “以奉義軍節度使·隴州刺史韋臯爲左金吾衛大將軍”(346쪽).

13)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원년(785) 6월 조, “辛卯, 以左金吾衛大將軍韋臯檢校戶部尙書, 兼成都尹·御史大夫·劍南西川節度觀察使”(349쪽). 吳廷燮, 『唐方鎮年表』 권6, 劍南西川, 969쪽.

南詔蠻으로 보내 [당조로] 귀부[向化]하도록 유세하여 토번의 조력자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최자사가 蠻國의 羊咀咩城¹⁴⁾에 이르자 그 왕 異牟尋이 흔쾌히 접대하며 토번과 단절하고 사신을 보내 朝貢하길 청하였다.¹⁵⁾ 그 해(788) [4월] 東蠻鬼主¹⁶⁾ 驃傍·苴夢衝·苴烏 등을 잇달아 보내 入朝하게 하였다.¹⁷⁾ 南蠻은 嶺州가 함락되면서부터¹⁸⁾ 토번에 臣屬하여 조공을 끊은 지 20여 년째였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통교하였다.¹⁹⁾

[정원] 5년(789) [10월] 위고가 大將 王有道에게 정예병을 훈련[簡習]시켜 토번의 경계로 들어가게 하였는데,²⁰⁾ 東蠻과 함께 옛 嶺州 臺登[縣]

14) 『신당서』 권222상, 「南蠻上·南詔傳」上, 「南詔, … 王都羊苴咩城, 別都曰善闡府」(6267쪽).

15) 谷彥梅, 「論韋皋在南詔歸唐中的作用」, 『黑龍江史志』 2014-16.

16)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787) 윤5월 조, “己未, 韋皋復與東蠻和義王苴那時書, [胡三省注: 東蠻跨地二千里, 勿鄧·豐琶·兩林, 各有大鬼主爲之長.] 使詞何導達雲南”(7485쪽); 『신당서』 권222하, 「南蠻下·兩爨蠻傳」, “兩爨蠻, 自曲州·靖州西南昆川·曲輓·晉寧·喻獻·安寧距龍和城, 通謂之西爨白蠻, 自彌鹿·升麻二川, 南至步頭, 謂之東爨烏蠻. … 夷人尙鬼, 謂主祭者爲鬼主, 每歲戶出一牛或一羊, 就其家祭之. 送鬼迎鬼必有兵, 因以復仇云”(6315쪽).

17)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788) 4월 조, “雲南王異牟尋欲內附, 未敢自遣使, 先遣其東蠻鬼主驃旁·苴夢衝·苴烏星入見. 五月, 乙卯, 宴之於麟德殿, 賜賚甚厚, 封王給印而遣之. [胡三省注: 封驃旁爲和義王, 苴夢衝爲懷化王, 苴烏星爲順政王]”(7513쪽). 『冊府元龜』 권965, 「外臣部」10, 封册3, “四年四月, 封東蠻鬼王驃旁·苴夢衝·苴烏星等爲和義·順政等郡王. … ”(鳳凰出版社, 11181쪽). 『책부원구』 권976, 「外臣部」20, 褒異3, “德宗貞元四年五月, 賜宴東蠻鬼王驃傍·苴夢衝·苴烏星等於麟德殿, 頒賜各有差”(11295쪽).

18) 『元和郡縣圖志』 권32, 「劍南道」中, 嶺州 州, “至德二年沒吐蕃, 貞元十三年節度使韋皋收復”(中華書局, 822쪽).

19) 『신당서』 권158, 「위고전」, “初, 雲南蠻羈附吐蕃, 其盜塞必以蠻爲鄉道. 皋計得雲南則斬虜右支, 乃間使招徠之, 稍稍通西南夷. 明年, 蠻大首領苴那時以王爵讓其兄子烏星. 始, 烏星幼, 那時攝領其部, 故請歸爵. 皋上言, 禮讓行于殊俗, 則佛戾者化, 願皆封以示褒進. 詔可. 又明年, 雲南款邊求內屬, 約束蠻鬼主驃傍·苴夢衝等絕吐蕃盟”(4394쪽).

20) 王永興, 「論韋皋在唐和吐蕃·南詔關係中的作用」, 『北京大學學報』 1988-2, 40쪽.

北谷에서 토번의 青海·臘城 2節度を 대파하여²¹⁾ 2천 급을 참수하고 籠官 45인을 생포하였고 벼랑과 골짜기로 투신하여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토번의 장수 乞藏遮遮는 토번의 용맹한 장수[驍將]로서 오래도록 변경의 우환이 되었는데, 걸장차차를 사로잡으면서부터 城柵이 투항하지 않음이 없었고, 몇 년 만에 결국 嶺州를 수복하였다.²²⁾ 功으로 吏部尙書에 더해졌다.²³⁾ [정원] 9년(793) [2월] 朝廷에서 鹽州城을 축조하게 하였는데,²⁴⁾ 토번의 掩襲을 받을까 우려하여 조서를 내려 위고에게 출병

21) 徐才安, 「略論中唐民族調整政策的執行者-韋皋」, 『四川師範學校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4, 63쪽.

22)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789) 10월 조, “韋皋遣其將曹(王?)有道將兵與東蠻·兩林蠻及吐蕃青海·臘城二節度戰于嶺州臺登谷, [胡三省注: 臺登, 漢縣, 唐屬嶺州.] 大破之, 斬首二千級, 投崖及溺死者不可勝數, 殺其大兵馬使乞藏遮遮, 乞藏遮遮, 虜之驍將也, 既死, 皋所攻城柵無不下, 數年, 盡復嶺州之境”(7519쪽).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5년 10월 조, 368쪽. 한편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5년 9월 조, “丙午, 劍南西川節度使韋皋敗吐蕃于臺登北谷, 克嶺州”(196쪽).

23) 『신당서』 권158, 「위고전」, “五年, 東蠻斷瀘水橋攻吐蕃, 請皋濟師. 皋遣精卒二千, 與蠻共破吐蕃於臺登, 殺青海大酋乞藏遮遮·臘城酋悉多楊朱及論東柴等, 虜墜死崖谷不可計, 多獲牛馬鎧裝, 遮遮, 尙結贊之子, 虜貴將悍雄者也, 既敗, 酋長百餘行哭隨之, 悍將已亡, 則屯柵以次降定. 進檢校吏部尙書. 初, 東蠻地二千里, 勝兵常數萬, 南倚閣羅鳳, 西結吐蕃, 狙勢彊弱爲患, 皋能綏服之, 故戰有功. 詔以那時爲順政王, 夢衝懷化王, 騾傍和義王, 刻兩林·勿鄧等印以賜之, 而夢衝復與吐蕃盟, 皋遣別將蘇崙召之, 詰其叛, 斬于琵琶川, 立次鬼主樣棄等, 蠻部震服. 乃建安夷軍於資州, 維制諸蠻, 城龍谿於西山, 保納降羌”(4934~4935쪽). 『구당서』 권196하, 「吐蕃傳」下, “五年十月, 劍南節度使韋皋遣將王有道等與東蠻兩林苴那時·勿鄧夢衝等帥兵於故嶺州臺登北谷大破吐蕃青海·臘城二節度, 殺其大兵馬使乞藏遮遮·悉多楊朱, 斬首二千餘級, 其投崖谷赴水死者不可勝數, 生擒籠官四十五人, 收獲器械一萬餘事·馬牛羊一萬餘頭匹, 遮遮者, 吐蕃驍勇者也, 或云尙結贊之子, 頗爲邊患, 自其死也. 官軍所攻城柵, 無不降下, 蕃衆日却, 數年間, 盡復嶺州之境”(5256~5257쪽). 『신당서』 권222하, 「남만하·양찬만전」, 6317~6318쪽 참조.

24)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9년(793) 2월 조, “辛酉, 詔復築鹽州城. 貞元

하여 견제하게 하였다.²⁵⁾ 이에 [5월] 대장 董勳·張芬에게 명하여 西山 및 南道에서 출병하여 峨和城·通鶴軍을 격파하게 하였다. 토번의 南道 元帥 論莽熱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구원하였는데, 다시 그들을 격파하여 수천 인을 살상하고 定廉城을 불태웠다. 무릇 堡柵 50여 곳을 평정하여 功으로 지위가 檢校右僕射로 승진하였다.²⁶⁾ [7월] 위고가 다시 西山羌의 女·訶陵·白狗·逋租·弱水·南水 등 8국의 酋長을 招撫하여 闕廷에 入貢하게 하였다.²⁷⁾ [정원] 11년(795) 9월 統押近界諸蠻西山八國·兼雲南安撫等使가 더해졌다.²⁸⁾ [정원] 12년(796) 2월 다시 同中書門下平章事가

三年, 城爲吐蕃所毀, 自是塞外無保障, 犬戎入寇, 既城之後, 邊患息焉”(376쪽). 『唐大詔令集』 권99, 政事·建易州縣, 「城鹽州詔, 中華書局, 499~500쪽.

- 25)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2월 조, “初, 鹽州既陷, 塞外無復保障, 吐蕃常阻絕靈武, 侵擾鄜坊. [胡三省注: 既阻絕靈武往來之路, 又侵擾鄜坊之民]. 辛酉, 詔發兵三萬五千人城鹽州, 又詔涇原·山南·劍南各發兵深入吐蕃以分其勢, 城之二旬而畢.” (7540쪽).
- 26) 『신당서』 권158, 「위고전」, “九年, 天子城鹽州, 策虜且來燒襲, 詔舉出師牽維之. 乃命大將董勳·張芬分出西山·靈關, 破峨和·通鶴·定廉城, 踰的博嶺, 遂圍維州, 搏棲雞, 攻下羊溪等三城, 取劍山屯焚之. 南道元帥論莽熱來援, 與戰, 破其軍, 進收白岸, 乃城鹽州. 詔舉休士. 以功爲檢校尚書右僕射·扶風縣伯”(4935쪽);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9년 5월 조, “乙巳, 韋臯奏, 遣軍出西山, 破吐蕃峨和城·定廉城·通鶴軍, 凡平堡五十餘所. 是日以蕃俘器仗來獻. … 甲寅, 加韋臯檢校右僕射”(376쪽);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5월 조, “韋臯遣大將董勳等將兵出西山, 破吐蕃之衆, 拔堡柵五十餘”(7547쪽).
- 27) 『구당서』 권12, 「덕종본기」하, 정원 9년 7월 조, “劍南西山羌女國王湯立志·…·南水王姪尚悉曩等六國君王, 自來朝貢. 六國初附吐蕃, 韋臯出西山討吐蕃, 故六蠻內附, 各授官秩遣之”(377쪽).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7월 조, “劍南·西山諸羌女王湯立志·哥鄰王董臥庭·白狗王羅陀忽·弱水王董辟和·南水王薛莫庭·悉董王湯悉贊·清遠王蘇唐磨·咄霸王董邈蓬及逋租王, 先皆役屬吐蕃, 至是各帥衆內附. 韋臯處之於維·保·霸州, 給以耕牛種糧. 立志·陀忽·辟和入朝, 皆拜官, 厚賜而遣之”(7548쪽).
- 28) 吳廷燮, 『唐方鎮年表』 권6, 劍南西川, 정원 11년(795) 조, “新表, 「西川節度增領統押近界諸蠻及西山八國·雲南安撫使”(971쪽). 염경이, 「唐 德宗代, 唐詔關係의 劍南西川節度使의 外交의 役割」, 『중국사연구』 114, 2018, 56쪽.

더해졌다.²⁹⁾ [정원] 13년(797) [5월] 嶺州城을 수복하였다.³⁰⁾ [정원] 16년(800) 위고가 장수에게 명해 출병하게 하여 수차례 黎·嶺 2주에서 토번을 격파하였다.³¹⁾ 토번이 분노하여 마침내 크게 열병[搜閱]하고 보루를 쌓고 배를 건조해 모의하여 침략하고자 하였으나 위고가 모두 좌절시켰다. 이에 吐蕃의 酋帥·兼監統曩貢·臘城等九節度 嬰과 籠官 馬定德이 그 大將 87인과 함께 部落를 들어 來降하였다. 마정덕은 계약이 있고 병법과 산천지형을 잘 알아 토번이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마정덕이 항상 역마[驛]를 타고 일을 계획하였는데, 토번의 諸將은 그가 미리 세워 둔 계책[成算]을 따랐다. 이때에 이르러 자신이 변경 방어에 실패[失律]하였다고 여겨 죄를 얻을까 두려워 귀순하였다.³²⁾

[정원] 17년(801) 토번 昆明城 관하의 磨些蠻에서 1천여 호가 다시 내항하였다. 贊普는 자신의 무리가 바깥으로 무너진다고 여겨 마침내 북쪽으로 靈·朔州를 침략하고 [7월] 麟州를 함락시켰다.³³⁾ 덕종이 사자를 成

29) 『신당서』 권158, 「위고전」, “於是西山羌女·訶陵·南水·白狗·連租·弱水·清遠·咄霸八國酋長, 皆因舉請入朝. 乃遣幕府崔佐時由石門趣雲南, 而南詔復通. 石門者, 隋史萬歲南征道也. 天寶中, 鮮于仲通下兵南溪, 道遂閉. 至是蠻徑北谷, 近吐蕃, 故舉治復之. 繇黎州出邛部, 直雲南, 置青溪關, 號曰‘南道’. 乃詔舉統押近界諸蠻·西山八國·雲南安撫使. 俄進同中書門下平章事”(4935쪽). 『구당서』 권12, 「덕종본기」하, 정원 12년(796) 정월 조, “乙丑, 成德軍節度使·檢校司徒·兼侍中渾瑊兼中書令, 興元節度使嚴震·魏博田緒·西川韋臯並加檢校左右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 於是方鎮皆敘進兼官”(383쪽). 단, 『구당서』 덕종본기에는 정월 조라고 하지만, 2월이 탈락된 것이다.

30) 『구당서』 권12, 「덕종본기」하, 정원 13년(797) 5월 조, “丙戌朔, 韋臯收復嶺州, 畫圖來上”(385쪽). 『구당서』 권12, 「덕종본기」하, 정원 13년 6월 조, “壬午, 韋臯奏於嶺州破吐蕃, 生擒大籠官七人, 馬畜器械不可勝紀”(386쪽).

31)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6년(800) 7월 및 8월 조, “己未, 韋臯克吐蕃未恭城. … 八月, … 韋臯克吐蕃顯城”(203쪽).

32)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是歲 조, “吐蕃數爲韋臯所敗, 是歲, 其曩貢·臘城等九節度嬰·籠官馬定德帥其部落來降. 定德有智略, 吐蕃諸將行兵, 皆稟其謀策, 常乘驛計事, 至是以兵數不利, 恐獲罪, 遂來奔”(7593쪽).

都府에 보내 위고에게 출병하여 토번의 경계로 깊이 쳐 들어가게 하였다. 위고가 이에 鎮靜軍使 陳洎 등에게 군사 1만 인을 거느리고 三奇路로 출격하게 하였고, 威戎軍使 崔堯臣에게 군사 1천 인을 거느리고 龍溪 石門路 남쪽으로 출격하게 하였고, 維·保二州兵馬使 仇冕과 保·霸二州刺史 董振 등에게 군사 2천을 거느리고 토번의 維州城으로 달려가게 하였고, 北路兵馬使 邢玘 등에게 4천을 거느리고 토번의 棲鷄·老翁城으로 달려가게 하였고, 都將 高侗·王英俊에게 군사 2천을 거느리고 옛 松州로 달려가게 하였고, 隴東兵馬使 元膺에게 군사 8천 인을 거느리고 南道の 雅·邛·黎·巂路로 출격하게 하였다. 다시 鎮南軍使 韋良金에게 군사 1천 3백을 거느리고 이어서 진격하게 하였고, 雅州經略使 路惟明 등에게 군사 3천을 거느리고 토번의 租·松 등의 성으로 달려가게 하였고, 黎州經略使 王有道에게 군사 2천 인을 거느리고 大渡河를 건너 토번의 경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였고, 巂州經略使 陳孝陽, 兵馬使 何大海·韋義 등 및 磨些蠻·東蠻二部落主 苴那時 등에게 군사 4천을 거느리고 昆明城·諾濟城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8월 출병하여 일제히 침입하면서부터 10월까지 토번의 병사 16만을 격파하고 7城, 5軍鎮, 3천호를 빼앗았고 6천 명을 생포하고 1만여 급을 참수하였다. 마침내 維州로 진격하였다. [토번의] 원군이 다시 이르러 1천 리에 걸쳐 轉戰하였는데, 토번군이 연이어 패배하였다. 이에 영주·삭주를 침략한 군대를 철수하여 남하시키고 찬보가 論莽熱을 內大相·兼東境五道節度兵馬都羣牧大使로 삼아 雜虜 10만을 거느리고 와서 維州의 포위를 풀었다. 蜀의 군대 1만 인을 협

33) 『자치통감』 권236, 정원 17년(801) 7월 조, “己丑, 吐蕃陷麟州, 殺刺史郭鋒, 夷其城郭, 掠居人及党項部落而去. … 上遣使敕韋臯出兵深入吐蕃以分其勢, 紓北邊患. 臯遣將將兵二萬分出九道, 攻吐蕃維·保·松州及棲雞·老翁城”(7597~7598쪽). 毛德昌, 「韋臯與唐代的西南邊疆」, 『思茅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1999-1, 10쪽.

준한 곳에 의지하여 북병으로 두어 그들을 기다리게 하였다가 먼저 1천 인을 내보내 挑戰하게 하였다. 논망열은 우리 군대가 적은 것을 보고 모든 군사들로 추격하였다. 북병을 일으켜 엄습하니 북소리가 우레와 같아 토번의 병사들이 스스로 무너졌다. 논망열은 생포되었고 적의 무리 10만 가운데 섬멸된 자가 절반이었다. 이해 10월 사자를 보내 조정에 논망열을 바치니, 덕종이 [논망열의 죄를] 열거한 뒤 풀어주고 [長安] 崇仁里에 저택을 하사하였다.³⁴⁾ 위고가 功으로 檢校司徒·兼中書丞에 더해졌고 南康郡王에 봉해졌다.³⁵⁾

[영정 원년(805) 정월] 순종이 즉위하고 [3월] 檢校太尉에 더해졌다.³⁶⁾ 순종이 오랫동안 병을 앓아 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처리할[臨朝聽政] 수 없게 되자, 宦者 李忠言, 侍棋待詔 王叔文, 侍書待詔 王伾 등 3인이 자못 國政에 간여하여 일체를 마음대로 하였다. [6월]³⁷⁾ 위고가 이에 支度副使

34) 『자치통감』 권236, 정원 18년(802) 정월 조, “吐蕃遣其大相兼東鄙五道節度使論莽熱將兵十萬解維州之圍, 西川兵據險設伏以待之. 吐蕃至, 出千人挑戰, 虜悉衆追之, 伏發, 虜衆大敗, 擒論莽熱, 士卒死者太半. 維州, 昆明竟不下, 引兵還. 乙亥, 皋遣使獻論莽熱, 『考異』曰: 『舊』「韋皋傳」云, ‘十月遣使獻論莽熱’, 今從『實錄』上赦之”(7599쪽).

35)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7년(801) 10월 조, “加韋皋檢校司徒·中書令, 封南康郡王, 賞破吐蕃功也”(395쪽); 『자치통감』 권236, 정원 17년 10월 조, “韋皋屢破吐蕃, 轉戰千里, 凡拔城七, 軍鎮五, 焚堡百五十, 斬首萬餘級, 捕虜六千, 降戶三千, 遂圍維州及昆明城. 冬, 十月, 庚子, 加皋檢校司徒兼中書令, 賜爵南康郡王. 南詔王異牟尋虜獲尤多, 上遣中使慰撫之”(7598쪽).

36) 『구당서』 권14, 「順宗本紀」, 정원 21년(805) 3월 조, “戊寅, 以韋皋兼檢校太尉, 李師古·劉濟兼檢校司空, 張茂昭司徒”(406쪽).

37) 『자치통감』 권236, 순종 영정 원년(805) 6월 조, “先時, 劉闢以劍南支度副使將韋皋之意於叔文, 求都領劍南三川, 謂叔文曰: ‘太尉使闢致微誠於公, 若與某三川, 當以死相助, 若不與, 亦當有以相酬.’ 叔文怒, 亦將斬之, 執誼固執不可. 闢尚遊長安未去, 聞貶士諤, 遂逃歸. 執誼初為叔文所引用, 深附之, 既得位, 欲掩其迹, 且迫於公議, 故時時為異同; 輒使人謝叔文曰: ‘非敢負約, 乃欲曲成兄事耳!’ 叔文詬怒, 不之信, 遂成仇怨. 癸丑, 韋皋上表, 以為: ‘陛下哀毀成疾, 重勞萬機, 故

劉闢을 京師에 사자로 보냈는데, 유벽이 몰래 왕숙문을 배알하여 말하길, “太尉께서 足下에게 정성을 다 하게 하였는데, 만약 某에게 劍南三川을 모두 통령[都領]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이나 만약 [이를]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또한 대가[奉報]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왕숙문이 대노하여 장차 유벽을 참수해서 효시[徇]하려 하였으나, 韋執誼가 극력 제지하였기 때문에 유벽이 마침내 몰래 돌아갈 수 있었다.³⁸⁾ 위고는 왕숙문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음을 알고 또 위직의와 틈이 벌어졌음을 알고, 스스로 대신으로서 社稷의 大計를 의론할 수 있다고 여겨 마침내 표를 올려 皇太子監國을 청하며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어루만지며 [나라를] 영원토록 안정시킴에 있어 儲兩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삼가 듣건대 聖明께서는 아직 [선황이] 山陵에 합사되지 않았을 때 거상의 예를 다함이 과도하였던지라 [이 때문에] 건강을 잃어 지금까지 편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다시 온갖 정무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삼가 헤아려보건대 단기간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태자께서는 총명한 자질에 이미 장성하였고 아름다운 명성이 날로 드러나 사해의 인심이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임시로 황태자에게 庶政을 監撫하게 하여 聖躬께서 건강을 회복하길 기다리도록 함으로써 하루라도 정사가 막히거나 지체되는 일을 면하게 하십시오.”³⁹⁾ 다시 황태자에게 牋을 올려 말하였다.

殿下께서는 重離의 성덕을 체현하며 儲貳의 중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九廟를 창성하게 하고 萬方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 천하의 안위는 전하께 달려

久而未安, 請權令皇太子親監庶政, 候皇躬痊愈, 復歸春宮”(7616쪽).

38) 趙文潤, 『論韋臯』, 『人文雜誌』, 1984-5, 90쪽.

39) 『전당문』 권453, 韋臯, 『請皇太子監國表』, 4627쪽.

있습니다. [韋]韋는 將相의 지위에 있으며 [조정의 잘못을] 바로잡아 보필하려는 뜻이 간절하였는데, 先朝께서 알아봐주시어 일찍이 은혜로운 보살핌을 입었습니다. 신하의 직분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아는 데에 있으니, 원컨대 황상의 총애에 보답하는 데에 마음을 다 바치길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聖上께서는 대업을 계승할 때 지혜롭고 영민하여 先朝를 본받아[攀感] 효로써 다스리는 데에 뜻을 두었습니다. [성상께서] 거상 기간에 대신들에게 [정사를] 위임하였는데, 다만 [정사를] 부탁한 자들이 공교롭게도 선량한 사람에서 벗어난 자들인지라 [정사에] 참여하여 치결함이 대부분 공정함을 잃었습니다. 지금 소인배들이 바라던 바를 이루어 기강을 문란하게 하니, 관직은 세력에 따라 옮겨가고 정사는 감정에 따라 바뀌고 있으며, 봉당이 서로 결탁하여 성상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복심을 심어두어 높은 지위에 두루 [포진시키고] 몰래 [성상의] 측근과 결탁하니, 화가 [황궁의] 담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부는 권문세가로 흩어지고 왕조의 부세는 천자의 부고로 납입되지 않고 있으며, [저들은] 오만불손하게도 거리낌 없이 일체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있고 관직의 임명이 질서를 잃어 先聖께서 배척한 臧[罪]를 범한 무리들이 모두 省·寺의 사이에 발탁되고 있습니다. 충신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근의 사람들이 애통해 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간웅이 이 기회를 틈타 이에 따라 병란을 책동하여 전하의 국가[家邦]를 위협하고 太宗의 왕업을 기울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태종께서 바람에 머리를 빚고 빗물에 몸을 씻으며 廟朝를 경영한 지 거의 200년이 되는데, 천만 년 동안 이어지길 바랐으나 하루아침에 [王]叔文 같은 간교하고 아침하는 무리로 하여금 조정의 정사를 조롱하고 그 흉금을 제멋대로 하게 하여 앉아서 전복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매번 이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한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소인배들을

축출하고 현량한 자들에게 [정사를] 위임하길 바랍니다. 삼가 공경히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태자가 優畚으로 답하였다. 裴均과 嚴綬의 牋·表가 계속 이르니, 이로 말미암아 정사가 태자에게 돌아가자 왕비와 왕숙문의 무리가 모두 쫓겨났다. 이해 [8월]⁴⁰⁾ 갑작스러운 병으로 추하니 이때 나이 61세였다. 太師에 추증되었고 5일간 廢朝하였다.

위고는 21년간 蜀에 있었으면서 賦斂을 무겁게 하여 매달 進[奉]을 바쳐 끝내 축을 텅 비게 하여 당시 여론이 비판하였다.⁴¹⁾ 그 從事 가운데 승진[累官]하여 점차 존귀해진 자는 [위고가] 상주하여 그 屬郡의 刺史로 삼거나 또는 府幕에 서임하여 대부분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무릇 조정[闕下]에 [자신이] 하는 일이 누설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유벽이 위고의 지난 작태를 인습하여 반역[不軌]을 도모하며 三川을 요구하였는데, 화근의 시작은 무릇 연유가 있었다. 위고의 형 [韋]聿은 당시 國子司業이었는데, 유벽이 盧文若과 더불어 西川을 점거하여 叛하였을 때 위고의 조카(아들?) [韋]行式이 앞서 노문약의 누이에게 장가들었음에도 위울이 상주하지 않았다. 위행식을 수감하고 그 처를 沒官시켰는데, 조서를 내려 御史臺에 위울을 심문하게 하니 위울이 하옥되었다. 有司에서 위행식의 처는 먼 곳에 있었고 형과 한 마음이 아니었으므로 連坐시키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니, 위행식의 처를 돌려보내고 위울을 석방하였다.

40) 『자치통감』 권236, 영정 원년 8월 조, “癸丑, 西川節度使南康忠武王 韋臯薨”(7620쪽).

41) 潘京京, 『唐代雲南第一任安撫使韋臯』, 『曲靖師專學報』 1985-1.

